

광양시, 걸어서 즐기는 ‘광양 원도심’ 뚜벅이 여행 추천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등에서 펼쳐는 특별한 전시와 공연

광양시가 광양의 젖줄인 서천에 향긋한 장미가 흐드러지게 만발하는 5월, 걸어서 즐기는 원도심 뚜벅이 여행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등 뚜벅이길 곳곳을 걸으며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했다.

광양예술창고와 인서리공원은 오랜 시간이 주는 시간과 기억의 향기를, 광양역사문화관과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등 근대역사 공간에서는 특별한 전시와 공연을 제공한다.

광양예술창고는 60년 된 폐창고를 재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미디어 영상실, 이경모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 A’, 소품 공간이자 문화집터인 ‘소교동B’가 있다.

천장의 트러스 구조를 노출해 개방감과 편안함을 주는 광양예술창고는 새하얀 벽에 심플하고 감각적인 조형물을 입혀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은 방문객들의 동선을 확장한다.

14채 낡은 한옥을 재생한 인서리공원은 전시공간, 스테이, 카페, 아트샵 등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독특한 감성과 경험을 제공하는 유니크 메뉴이자 MZ세대들의 성지다. 안온한 북카페, 아트숍 ‘아트앤에디션’, 빈 차고를 변모시킨 예술공간 ‘01’, 창고를 개조한 ‘반창고’ 등은 뚜벅이 여행자를 환대하는 문턱 없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이다.

광양역사문화관(등록문화재 제444호)은 건축사적 가치와 역사성 및 장소성을 두루 지닌 광양군청사를 재생한 곳으로 광양의 커를 층층이 담고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광양의 역사, 광양 4대 산성, 근대건축물 등 광양의 문화와 인물 등을 파노라마로 살펴볼 수 있으며 명절 등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된다.

역사문화관 내 기획전시실에서는 한지



의 우수한 물성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야생화 시리즈를 선보이는 이인선 개인전 ‘자연을 담은 한지 꽃’가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남부연습림 내 직원 관사로 당시 일본 주택의 독특한 공간 구성 형식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상반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밝은별 아트살롱’이 열리고

있으며, 오는 5월 17일에는 영화감독과 대화하고 OST를 청취할 수 있는 ‘토크&공연’ 순서가 마련돼 있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의 원도심은 오래된 시간이 축적된 공간만이 줄 수 있는 고유의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뚜벅이길 걷다 보면 자연스레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상 가득한 카페에서 사색까지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치매 조기 검진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 누리세요”

진도군보건소는 지난 9월에 진도읍 소재 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치매 조기 검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부터 협약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주민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힘써왔다.

현재까지 조기 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총 2개소이며, 길정신건강

진도군보건소-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업무협약

업무협약을 통한 치매 조기 검진 의료 접근성 강화

의학과의원과 해남우리종합병원이다.

군은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편의성을 높여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치매 고위험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군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수행 절

차에 따라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나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협약 의료기관은 감별검사를 진행해 최종 진단을 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협약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게 되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최대 8만 원까지 감

별검사비가 지원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며, “협약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군민들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치매 조기 검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진도군치매안심센터(540-6962-697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무안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지붕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추락의심, 싹틈없이! 추락예방, 빈틈없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5일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붕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산업재해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추락사고는 전체 산재의 약 4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특히, 농촌에서는 축사, 주택, 공장 등의 철거 및 보수 작업 중 노후 자재나 채광장 등 취약 구조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 방호망이나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지붕이 경사형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하는 작업자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턱 끈을 단단히 고정해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김산 군수는 “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철저히 점검해 군민 스스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며 “재난 없는 안전무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군 제공

순천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

실시간 기상 대응체계 및 재난취약지역 집중 점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6일 늦은 오후부터 순천 전역에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재난 취약지역 점검 등 선제적인 대응 조치에 나섰다

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 및 하천, 산사태 우려지역 사전 예찰 강화 ▲배수펌프장 작동 점검 ▲침수 우려지역 주민 사전 대피계획 ▲재난 문자 등 시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로 및 배수시설을 사전에 점검한 뒤 도로에 일정수위 이상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령자, 복지분야 취약시설 등 풍수에 취약계층에 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살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16일 순천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13개 재난 관련 부서가 모여 집중호우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가졌다.

순천/정성인 기자

☎062-525-9775

고흥군,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입주 시작

안정적인 고흥 정착의 거점공간 역할 기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체류기간 동안 다양한 영농정보를 습득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입주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와야 고흥스테이 2호는 남양면 귀농귀촌대학학교 부지 내에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원룸형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1호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을 갖춘 체류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준공 후 입주자를 공개 모집했다.

입주 예정자는 총 11세대 14명으로 서울, 경기, 강원 등 도시지역에서 전문직에 종사한 퇴직자가 대부분이며, 평균 연령

은 57세대. 이들 중 귀촌 희망자는 5명, 귀농 4명, 귀어 1명, 귀향 1명으로 파악됐다.

입주 후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월 임대료는 15만 원(보증금 150만 원)이다. 각 세대에는 텃밭과 함께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이 갖춰져 있어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수도권에서 은퇴 후 고흥으로 체류를 결심한 입주 예정자는 “젊은 시절부터 꿈꾸었던 전원생활이 현실이 됐다”며, “고흥스테이에 거주하며 귀촌 준비와 전원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보성군, 공직자 앞장서 투표율 제고 전방위 홍보 총력

“다음 세대 위한 한 표, 보성군이 먼저 움직입니다”

보성군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앞장서는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군 차원의 홍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천이 바로 투표”라는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개최하며 투표율 제고 활동에 나섰다.

이날 퍼포먼스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 전반에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주요 도로변과 읍면 소재지 60개소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보성역·별교역·다향체육관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에는 홍보 조형물을 설치해 자연스럽게 유권

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행정 전화에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에 꼭 참여해 주세요. 투표는 힘이고 민주주의의 꽃입니다”라는 음성 통화연결음을 적용해 민원인이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투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읍면 민원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포스터 및 리플릿을 비치하고, 보성군 누리집과 공식 SNS, 군청사 내외부 전광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해탈 같은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원한 사람을 만나고 기억지 말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새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내고 있다는 것과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그대로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들
우어도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망망해상
한드서 기억할 것.
잠시
리우고
평범한 것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평범한 것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평범한 것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